

올림픽급 대회...北 참여땐 평화 축제로



2019 광주세계수영 2년 앞으로

〈상〉 '광주 브랜드' 제고 기회

208개국 1만5천명 참여
지구촌 4대 메가 스포츠
U대회처럼 성공 개최 자신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2년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를 성공리에 마친 경험을 갖고 있는 광주가 또 한번 성공 대회 개최를 통해 스포츠 선진도시로의 발돋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북한 선수단의 참여 여부도 관심이다. 북한 선수단의 참여에 따라 남북 관계 개선 등도 기대된다.

◇아시아에서 3번째...208개국 1만5000여명 참석=한국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며, 일본 후쿠오카(2001년)와 중국 상하이(2011년)에 이어 아시아에서 3번째로 개최되는 대회다.

18번째로 열리는 광주 대회는 2019년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총 31일 동안 208개국에서 1만5000여명이 참석하며, 광주와 전남 장성 등에서 개최된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칠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7월 12일부터 7월 28일까지 17일간 열린다. 이 대회가 끝난 뒤 전 세계 수영 동호인들이 참가해 열리는 마스터스선수권 대회는 7월 29일부터 8월 11일까지 14일간 이어나간다. 이 대회는 총 6개 종목(경영·다이빙·싱크로나이즈 수영·수구·하이다이빙·오픈워터 수영)에서 75개 경기가 열린다. 마스터스선수권대회는 참가자의 나이를 5세 단위 그룹으로 나눠 경기가 펼쳐지며 메달도 그 결과로 정해지는데 통산 700여개에 이른다.



북 다이빙 세계선수권 **銀** 북한의 김미래(16)·김국향(18) 조가 16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두나 아라나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다이빙 10m 싱크로나이즈 플랫폼 결승에서 연기를 펼치고 있다. 김미래·김국향 조는 이날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회는 7월 29일부터 8월 11일까지 14일간 이어나간다. 이 대회는 총 6개 종목(경영·다이빙·싱크로나이즈 수영·수구·하이다이빙·오픈워터 수영)에서 75개 경기가 열린다. 마스터스선수권대회는 참가자의 나이를 5세 단위 그룹으로 나눠 경기가 펼쳐지며 메달도 그 결과로 정해지는데 통산 700여개에 이른다.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17일간, 마스터스선수권대회는 14

일간 열리기 때문에 1개월 가량 광주에서 지구촌 수영 축제가 열리는 셈이다.

◇도시 브랜드 '업'(UP)=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대회 기간이 올림픽보다 14일이 많은 31일간이며, 참가 규모와 흥행면에서 하계·동계올림픽, 월드컵 축구대회와 함께 4대 메가 스포츠 대회로 꼽힌다. 특히 전 세계 200여개 국가가 대회를 TV 중계하는 등 미디어 노출 등 방송 홍보가 치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은 국민적 요구이자 정치권 의무”

정세균 국회의장 밝혀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제 69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지난 대선 당시 각 당 후보 모두가 개헌을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화답했다”면서 이를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개헌 일정과 관련해 “국회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을 거

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 등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국민에 의한 개헌과 관련하여선 “앞으로도 전국순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미래를 향한 개헌과 관련, “본권은 시대정신의 핵심”이라면서 “권력의 편중과 오남용에 따른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전방위적 분권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 개헌이 남아 있는 유신 잔재 청산과 선거제도 개편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호기자 khh@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국민 80% 찬성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은 지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14일 CBS의 의뢰로 전국 성인 50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 4.3% 포인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78.4%, 반대한다는 의견은 16.3%였다. 나머지 5.3%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모든 직업, 연령, 지역,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크게 우세했다. 직업별로 사무직의 찬성률이 86.5%로 가장 높았고,

이와 노동직(83.3%), 학생(82.3%), 가정주부(76.6%), 자영업(66.2%)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0대(94.2%)와 30대(92.1%)의 찬성률이 월등히 높았다. 40대(83.4%)와 60대 이상(65.4%), 50대(62.7%)도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했다. 서울(84.7%), 경기·인천(82.6%), 대전·충청·세종(76.5%), 광주·전라(74.5%), 대구·경북(74.4%), 부산·경남·울산(67.2%) 등의 순서로 찬성률이 높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임기만료 공공기관장 인선 곧 착수

靑 ‘전 정권 인사 먼저 물갈이’ 부인

청와대가 차관급·외청장 인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여권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가까운 시기에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곳이 발생함에 따라 후임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공공기관장의 경우 정치권 출신을 임명한다고 해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의 큰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즉, 정치인을 배제하지 않되 전문성을 고려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을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인사 방침이 제시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해 임명한 기관장이 최우선 교체 대상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 범위에 해당되는 인사는 이양호 한국마사회 회장(지난해 12월 임명), 방희서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지난 3월 임명) 등이 있다.

‘친박’(친박근혜) 정치인 출신 공공기관장의 교체도 거론되는 분위기다. 친박계 3선 의원 출신인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7월 임기를 6개월 남겨놓고 자진 사퇴했다. 또 지난 정부와 가까운 정치인 출신으로는 광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9월 임기 만료,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11월 임기 만료), 박보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지난해 9월 임기 만료),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지난 2월 임기 만료) 등이 있다. 아직 임기는 남아있지만 고학찬 예술의전당 사장, 송혜정 국악방송 사장,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 등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장 자리들을 우선 인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전(前) 정부 인사들을 무조건 채내지 않고, 검증 등을 통해 전문성도 살펴볼 것인 듯하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박근혜 정부 당시 인선된 공공기관장들을 먼저 물갈이 한다는 방침이 없다는 설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주요 차관급 외청장 인선 프로필

조달청장	병무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박춘섭 (57) 충북 단양 대전고, 서울대 무역학과, 영국 맨체스터대 경제학 석사.	 기찬수 (63) 경남 김해 진영초고, 3사관학교 13기, 성공관대 경영학과, 성공관대 행정학 석사	 라승운 (60) 전북 김제 김제농공고, 방통대 농학과, 고려대 농학 석사, 고려대 원예학 박사	 김재현 (52) 전남 담양 광주전주고, 서울대 입학사, 서울대 농학 석사, 일본 쓰쿠바대 농학 박사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대변인, 행사 31회	현대에너지 대표이사, 육군중군단 부군단장,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국군기무사령부 1차장	전북대학교 원예학과 석좌교수, 농촌진흥청 차장, 국립농업과학원 원장,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 위원장, 희망제작소 부소장	건국대학교 산림경과과 교수, 생명의 숲 국민운동 운영위원장, 화랑 서울 정책지원위원회 경제협력분과위원장, 희망제작소 부소장
기상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국립외교원장	국립중앙박물관장
 남재철 (58) 경북 안동 안동고, 서울대 농학과, 서울대 기상학 석사, 서울대 대기과학 박사	 오동호 (55) 경남 산청 진주고, 청와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 정책학 석사, 성공관대 행정학 박사	 조병연 (61) 경북 영천 대림고, 서울대 외교학과, 영국 셰세스대 국제정치학 석사	 배기동 (65) 부산 경남고, 서울대 고고인류학과, 서울대 고고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대 인류학 박사
기상청 차장, 기상청 수도권 기상청장,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장, 기상청 기상산업정보국장, 행사 128회	인사혁신처 인사지원위원회 상임위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 울산광역시 행정사장,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 행사 128회	외교부 주말레이시아대사관 대사관 행정전담사, 외교통상부 한미안보협력 담당 이사, 외교통상부 대변인,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외시 15회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좌교수,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이사장, 문화재청 한국 전통문화교류 총장, 시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장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광공인중개사

상 가 건 물

1.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27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용봉동 3층 대로변상가 대1,100㎡ 매28억(840만/평, 용22억 포함)
6. 노대동 3층 상가건물 대831㎡ 매26억원(보1,5억 월222 포함)
7. 일곡동 6층 상가건물 대330㎡ 매22억원(보2,4억 월9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 가 주 택

1. 신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9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용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 장 / 토 지 / 기 타

1. 도천동 하남산단9년보 광산C 입구 공장2동 대1,218㎡ 매12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일야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녹지 담745㎡ 매3,65억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전1,207㎡ 매2,9억원
6. 산월동 자연녹지 택지조성원로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층일부주거 전2,115㎡ 매2,8억원
8. 매곡동 대광로제비방 1층 상가 주출입구코너 71㎡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홍창경**
북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부동산 투자의 답 제주에 있습니다

제주에서 현재 가장 HOT PLACE인 영어교육도시 및 신화역사공원 인근 부동산을 강력 추천합니다.

원 료

-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525㎡, 건물 522㎡, 방 8개 [예산연수입 85백만원] 매가 15억
-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430㎡, 건물 306㎡, 방 8개 [예산연수입 67백만원] 매가11억원

펜 션

-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5,637㎡, 방 9개, 매가 14,8억 (예산연수입 1억3백만원)

전원주택

- ▶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대 483㎡, 건물 84㎡, 매가 3,7억
- ▶ 서귀포시 대정읍 신광리, 대 406㎡, 건물 67㎡, 매가 3억 [카페, 음식점가능]

토 지

-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임야 4,664㎡, 계획관리, 매가 26억 [전원주택지]
- ▶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전 2,774㎡, 계획관리, 매가 12,5억 [다가구주택, 전원주택지]
-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전 3,635㎡, 계획관리, 매가 21,9억 [전원주택지]
-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임야 5,983㎡, 생산관리, 매가 21,7억 (전원주택지)
- ▶ 제주시 한림읍 금릉리, 전 2,777㎡, 자연녹지, 매가 10,9억 (단독주택, 펜션부지)
-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전 4,780㎡, 계획관리, 매가 16억 [신방산단전 인근, 펜션부지]

NAVER **올레탐공인중개사** 검색

26년 은행경력력의 노하우 **올레탐공인중개사** 기성후·기정근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434 ☎064)792-8979

광주바이블칼리지 신입생모집

현 전도사 사역자 특별우대!
여목사제도!

광주바이블칼리지 입학안내

1. 모집기간: 수시모집
2. 모집인원: 100명, 저녁반(월, 화), 토요일 각 30명 내외
3. 구비서류: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최종학교 졸업증서 및 성적증서
4. 접수처: 본교 행정실
5. 등록금과 장학혜택에 관해서는 학교로 문의 바랍니다.

본교 교수진

성명	신학교	성명	신학교
최사태	영남신학교	김한	중앙신학교
이신환	필리핀신학교	김영민	필리핀신학교
박종훈	필리핀신학교	고광대	필리핀신학교
박영민	필리핀신학교	김영민	필리핀신학교
이영재	필리핀신학교	박영민	필리핀신학교
이영재	필리핀신학교	박영민	필리핀신학교
김영민	필리핀신학교	박영민	필리핀신학교
김영민	필리핀신학교	박영민	필리핀신학교

광주바이블칼리지 소개

- 개혁주의 보수교단에 속한 유망교수의 수준 높은 강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서학회 인준신학교로 졸업후 목사안수제도 (여목사제도)
- 오랜 경력의 교수들이 담당하는 개혁신학 강의와 구체적인 융성한 가르침
- 목회사역과 헌정중심의 심화적인 수업

석박사 학위과정

- 미국 캘리포니아 디버덴스 대학교와 학사과정 협한 (M.A.)
-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Div) = 5학기 (30학점)
- 박사과정: 목회학 박사(D.Min) = 6학기 (36학점)

전남 담양군 무정면 중리도동길 42-34(산도리 산 72)
☎ 061-381-0000